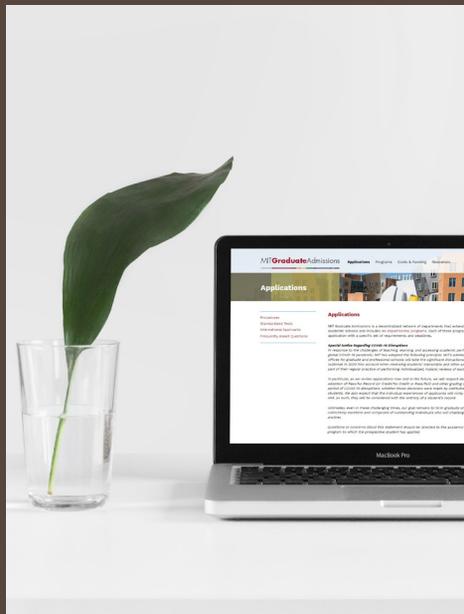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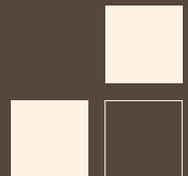
미국 대학원 유학 가이드북

15TH EDITION



THE COMPLETE GUIDE TO U.S. GRADUATE SCHOOL ADMISSIONS

THE EXPERT ADVICE ON ADMISSION TO THE MASTER'S
AND DOCTORAL PROGRAMS



CONTENTS

CHOOSING THE RIGHT PROGRAM

COVID-19와 2022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02
미국 대학원 지원 Timeline	03
학교 찾기	04
랭킹 이야기	05
전공별 지원 Tips	06
STEM-Computer Science	08
박사 지원자의 교수 컨택	09
학비와 장학금	10

HOW TO PREPARE A WINNING APPLICATION

Top 10 Engineering schools와 NO GRE	11
GPA (Grade Point Average)	14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15
GRE (Graduate Record Examinations)	16
이력서 (Resume)	17
SOP (Statement of Purpose)	18
PHS (Personal History Statement)	19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20
원서 (Application)	21
Interview	22

TESTIMONIALS

2021년 합격자 후기	23
--------------	----

LEADERS WORKING FOR YOU

석박사 유학 컨설팅 서비스	28
리더스 유학 합격자 정보	30
공무원 국외 훈련 석사 유학	31
미국 대학원 조건부 입학	32
INTO	33
유학 상담 안내	34

COVID-19와 2022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02



2020년부터 사상 유례없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이 펼쳐지자 미국 대학원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대학원 연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고, 연구비 예산 삭감으로 박사를 뽑지 않는 프로그램도 많았습니다. 준비 없이 온라인 수업이 급하게 시행되었지만 시스템을 갖춘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들 사이의 갭도 커졌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국제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과거 대면 수업에서 누릴 수 있었던 혜택들이 사라져 학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 7월 현재 미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2021년 가을 학기는 대면 수업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COVID-19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므로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의 선택권을 주는 하이브리드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2022년 가을학기 지원자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까요? 마감일이 올 11월부터 시작되기에 여전히 COVID-19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올해도 많은 학교에서 GRE 점수 제출을 면제 또는 선택의 옵션으로 둘 가능성이 큼니다. COVID-19 팬데믹 하에서 2021년 가을 학기 지원자의 GRE 응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였으나 2022년 지원자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리더스 유학의 2021년 합격자 중 상당수가 GRE를 제출하지 않고 다수의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GRE가 선택의 옵션으로 있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점수를 제출한 다른 지원자들보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2022 가을학기 지원자들은 먼저 학교 씨치를 통해 입학 요강에서 GRE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준비 일정을 잡을 것을 권유합니다. 작년에는 면제된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는 다시 요구로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최종 입학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GRE 점수가 면제된다면 TOEFL 시험에 비중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TOEFL은 미니멈 80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합격자들의 TOEFL 점수는 100 이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Overall 점수 외에 각 섹션 별 미니멈 점수도 확보해야 합니다. TOEFL Essentials라 불리는 8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험 유형도 관심을 기울여볼 만 합니다. \$110로 응시료를 낮추고 1시간 반 동안 치러진다고 하는데 여러 미국 대학원들이 이 유형 역시 iBT처럼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TOEFL 시험 준비에 있어 좀 더 편의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학원에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Holistic review (전인적인 평가)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GRE 같은 시험 점수에 의존하기보다 지원자의 성적표, 이력서, SOP, 추천서 등 제출 서류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교의 주관적인 평가를 더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Video 자기소개를 원서에 추가하는 프로그램도 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원하는 인재상과 내가 충분히 잘 부합됨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의 출간, 성실함의 잣대가 되는 학업 성적표, 과거의 경력과 성과를 기록한 이력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학교 선택을 이야기하는 학업계획서, 교수로부터의 객관적인 검증이 더해진 추천서, 마지막 관문인 인터뷰 등이 가지는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2022년 가을 학기 지원자들은 미국 대학원의 이런 변화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유학 준비에 임해야 합니다.

미국 대학원 지원 Timeline

CHOOSING THE RIGHT PROGRAM

미국 대학원 지원 준비, 막상 시작해보면 해야 할 일이 많아 막막하기만 합니다. 첫 단계인 학교 찾기부터 TOEFL, GRE 점수 획득, 지원 학교 결정, 이력서, SOP 작성, 추천서 받기, 원서 제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원서를 제출하고도 합격 발표까지는 최소 2~3달 이상 걸립니다.

2022년 미국 대학원 가을 학기 지원자를 위한 Sample application timeline

2021	6 Jun	7 Jul	8 Aug	9 Sep	10 Oct	11 Nov	12 Dec	1 Jan	2 Feb
School search	●	●	●	●	●	●	●	●	●
Faculty contact [Ph.D.]	●	●	●	●	●	●	●	●	●
Resume	●	●	●	●	●	●	●	●	●
TOEFL	●	●	●	●	●	●	●	●	●
GRE [If required]	●	●	●	●	●	●	●	●	●
School selection	●	●	●	●	●	●	●	●	●
Statement of purpose	●	●	●	●	●	●	●	●	●
Personal history statement	●	●	●	●	●	●	●	●	●
Letter of recommendation	●	●	●	●	●	●	●	●	●
Application & Status check	●	●	●	●	●	●	●	●	●

미국 대학원 가을학기 원서 마감일은 보통 전년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경이지만, 학교 측에서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시기는 전년도 9월 초부터입니다. 전공에 따라서 지원 마감일이 10월인 경우도 있으므로 위의 제시된 일정보다 더 서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대학원이 빠른 지원을 독려하곤 합니다. 박사 지원 마감일이 1월 초였던 학교에 일찍 지원한 학생이 11월 말에 합격 Offer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학교가 경쟁력 있는 지원자에게 미리 자리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요구 서류와 요건들이 빠짐없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특히 Rolling admission인 학교는 정해진 마감일이 없고 원서를 받는 순서대로 검토하기 때문에 빠른 지원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미국 대학원 유학 준비 과정에 필요한 항목과 순서는 지원자의 전공과 학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항목의 준비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Search가 첫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가 해당 학교에서 확실히 다뤄지고 있는지, 교수진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의 조사부터 미리 들어야 하는 선수 과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공에서 중요시되는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지원에 요구되는 최소 TOEFL 점수는 몇 점인지, GRE는 요구하는지, 그렇다면 지난 합격자의 GRE 평균 점수는 몇 점 정도인지 등을 조사하고 해당 학교들이 요구하는 입학 요건을 목표로, 그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Timeline을 만들어 지원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학교 찾기

04

미국 대학원 지원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 대학원에서는 유사 Research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한국 대학과는 다른 단과 대학이나 다른 학과 아래 소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나 학위명, 입학 요건과 경쟁률도 학교마다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관심 연구 분야로 어느 학교가 좋은지, 본인의 Qualification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어디인지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아직 시험 점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까지 학교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그 범위를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Safety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학부 GPA와 지원 전공 관련 이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학의 목적과 Career goal을 고려해 Safety 학교들을 어느 선까지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afety를 전공 순위 50위로 정했다면 본격적인 학교 검색은 50위 이내의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 중 최종 지원할 학교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Safety기준이 지원자의 Qualification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다면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합격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후보군 중에서 지원자에게 잘 맞고 합격 가능성이 큰 학교를 찾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①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된 최신 전공 순위를 참고합니다.

e.g. <https://www.usnews.com/rankings>
<https://www.topuniversities.com, etc.>

② 순위 자료가 없다면 전공별 인증기관이나 대표 학술 사이트를 찾아봅니다.

e.g.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APTA)
 North Americ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NASSM), etc.

③ 순위 자료와 전공별 인증 기관도 찾기 어렵다면 www.gradschools.com에서 해당 전공과 학위를 제공하는 학교 리스트를 찾아보고, 유사 전공 순위를 참조하여 학교 범위를 좁힙니다.

④ 대략적인 학교 군이 정해졌으면, 각 학교 해당 학과 페이지의 'Research,' 'Faculty,' 'Laboratory,' 'Program'을 참고하여 본인의 'Research interest'와 잘 맞는 학교들을 선택합니다. 학교별 특징점, 교수 정보 등을 이때 정리해 두면 교수 컨택을 하거나 SOP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됩니다.

⑤ 박사 지원자는 교수에게 컨택하거나 해당 학교의 석사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추천인이나 동일 전공으로 유학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연구 혹은 업무를 하고 있는 선배나 상사에게 학교 추천을 요청합니다.

⑥ 날씨, 지역 안정성, 도시 규모에 대한 선호도, 장학금 가능성이나 학비 생활비 등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골라 관심 학교 수를 줄여나갑니다.

⑦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Admission requirement(마감일, GPA, TOEFL, GRE, 선수과목, 기타 부가 서류 여부 등)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합니다. 정리된 표에서 제시하는 가장 빠른 마감일의 학교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지원 준비 일정을 잡습니다.

⑧ 마감까지 남은 준비 기간 동안 본인이 끌어 올릴 수 있는 Qualification이 무엇인지 파악해 준비 과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시험이 마무리되면 최종 지원할 학교를 선택합니다.

랭킹 이야기

05

유학을 위한 학교를 찾을 때, 그 학교나 특정 프로그램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참고하는 자료 중 하나는 랭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 / 대학원 관련 랭킹은 약 2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4개의 랭킹은 다음과 같습니다.

● U.S. News & World Report

U.S. News & World Report 랭킹의 주목할만한 점은 미국 학교 위주라는 것입니다. 1983년 처음 랭킹을 발표한 이래 해마다 순위를 매겨왔고 유일하게 대학과 대학원을 차별화해서 각기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 순위가 아닌 Business, Law, Medical, Engineering, Nursing, Education의 큰 카테고리를 비롯해 Fine arts, Health,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Public affairs, Scienc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로 전체 120개의 전공 랭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공을 다루고 있기에 미국 대학원 지원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uacquarelli Symonds (QS)

영국의 평가 기관인 QS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The Times Higher Education과 함께 공동으로 매년 전 세계 1,000여 개 대학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했고 2010년부터는 독자적으로 아시아권, 세계권으로 나누어 순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대학 중심이기에 대학원 랭킹이 없으나 Business analytics, Finance, Management, Marketing으로 세분된 Business Masters 랭킹, Global MBA 랭킹은 따로 매겨져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 지원자들에게 유용한 이유는 Arts & Humanities, Engineering & Technology, Life sciences & Medicine, Natural sciences, Social sciences & Management의 5가지 카테고리 아래의 총 48개의 세부 전공 랭킹 때문입니다. U.S. News & World Report 랭킹에 속하지 않은 Architecture 등의 순위도 있어 학교보다는 전공 위주로 학교를 찾는 대학원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 The Times Higher Education (THE)

THE는 영국의 신문사 The Times에서 발행하는 고등 교육 관련 주간지 The Times Higher Education의 랭킹입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역시 QS와 마찬가지로 전공별 랭킹입니다. Clinical, Pre-clinical & Health, Life sciences, Physical sciences, Psychology, Business & Economics, Education, Law, Social sciences, Engineering & Technology, Computer science, Arts & Humanities의 11가지 카테고리 아래 35개의 전공 랭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공들을 Overall, Teaching, Research, Citations, Industry income, International outlook으로 선택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

ARWU 랭킹은 중국 상하이 교토대학에서 2003년 이래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입니다. 학술적 수준만을 지표로 평가하는 랭킹으로, 연구 실적을 주로 반영하며 ARWU 랭킹은 영국 ECONOMIST에 매년 게재됩니다. 2017년부터는 전체 54 전공별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랭킹들을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QS나 THE 랭킹은 영국과 유럽 학교들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비판이 있고, 학과 수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아무리 명문이어도 랭킹에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권 학교라 하더라도 나에게 어느 정도 만족도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사 지원자의 경우,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다루는 교수진의 유무 역시 학교 선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랭킹을 최적의 학교 선택을 위한 하나의 유용한 자료 정도로만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공별 지원 Tips

06

미국 대학원은 전공에 따라 입학 요건, 합격 난이도 등이 매우 다릅니다. 합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준비 기간 동안 그 평가 요소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Business

탑 스쿨 MBA는 TOEFL 110, GMAT 720 이상의 점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합격자들의 평균 직장 경력은 3~5년이고 지명도 높은 외국계나 컨설팅, 금융계 그룹이나 한국의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MBA가 아닌 Accounting, Business Analytics, Finance, Marketing, Taxation 등의 석사 과정도 각 학교, 학과에 따라 지원 가능 학기, 마감일, 선수과목 요건, 경력 유무, 인터뷰 등의 요구 여부가 다릅니다. 경영학 박사는 합격이 쉽지 않아 Statistics나 Economics 석사과정을 거쳐 박사 지원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 *Business Analytics* 석사 과정은 다른 경영학 전공과는 다르게 대부분 STEM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Multivariate calculus*, *Linear algebra* 및 *Probability and Statistics*를 포함하는 수학의 기초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Python이나 R과 같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학은 Advertising과 Public relations를 비롯하여 Journalism, Mass communication, Media studies, Film and Television, Cultural studies 등 여러 전공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통 Communication studies가 Writing sample을 요구하며 박사 Only 과정을 위주로 개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Advertising과 Public relations는 석사 과정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고 타 전공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 Marketing과 Statistics 수업을 이수해 둔다면 합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Stanford University*의 *MA in Journalism*은 3개의 저널리즘 Writing sample을 요구합니다. 이 중 2개는 어떤 멀티미디어 형식(오디오, 비디오, 블로그, 사진)으로도 디지털 미디어 샘플을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ducation

교육학은 일반적으로 타 전공보다 입학 경쟁률이 낮은 편이며, 교사 경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석사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전공과 비교해 선수과목에 대한 요구가 적거나 없습니다. 단, 영어, 수학, 과학 교육 등 특정 수업 관련 학과는 해당 주의 공립 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License 프로그램이거나 이미 Teacher certificate를 취득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생에게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MA in Educational Leadership, Politics, and Advocacy (ELPA)*, *New York University*는 GRE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졸업 후 지역 아동 단체, 비영리단체나 국제 NGO에서 일하려는 지원자에게 적합하며 지역단체나 정책연구기관에서의 Internship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ngineering

공대는 보통 Bio, Electrical, Materials, Mechanical이 Industrial, Civil보다 합격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다른 전공에 비교해 RA나 TA를 받을 확률이 높은 편으로, Lab, 논문 등의 연구 경력이 많을수록 합격에 유리하니 석사 지원자도 학부 연구생 경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석박사 통합 과정은 학부 졸업자도 바로 지원할 수 있지만, 합격률이 낮으니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합니다. 2022 US News & World Report에 따르면 공대 대학원 상위 20위까지의 석사 합격률은 대부분 20~30% 이상이나 박사 합격률은 8~15%입니다.

- 모든 학교에서 공학 프로그램이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Stanford University*, *Mechanical Engineering*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바로 박사 과정에 지원 가능하지만,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Mechanical Engineering* 학과는 석사 학위가 없는 경우 바로 박사 학위로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전공별 지원 Tips

07

Humanities & Arts

인문대는 대부분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고 소수의 인원을 뽑기 때문에 합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수한 GPA는 물론이고, TOEFL 점수를 포함하여 GRE Verbal Reasoning과 Analytical Writing에서도 고득점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지원에서도 Humanities & Arts 전공은 타 전공에 비해 여전히 GRE 제출이 요구되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석사 과정이라 할지라도 Writing sample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 연구 경력이 없는 학부 졸업자에게는 합격의 문턱이 높습니다.

-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New York University*의 *East Asian Language and Literature*는 2021년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GRE 제출이 면제되었습니다.

Mathematics & Computer Science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의 인기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Mathematics나 Computer science 계열 지원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과목 요구가 많아 비전공자가 지원하기는 어렵고, 관련 분야 중 경영, 수학, 통계, 컴퓨터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Data science가 가장 인기 있는 전공 중 하나입니다.

- *Columbia University*의 *MS in Data Science*의 지원 조건은 학부 전공과 상관없이 선형 대수, 확률/통계 등의 과목과 *Programming* 입문 (i.e., *Python, Java, C+, etc.*) 과목 선이수가 필수입니다.

Natural Sciences

자연대는 대부분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어 합격하기 매우 어렵지만, 합격한다면 장학금은 보장됩니다. 연구 경력이나 논문이 합격의 중요한 요소이며 연구 관심사가 일치하는 교수를 찾아 컨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구 주제에 따른 Interdisciplinary 프로그램도 많아 지원 전공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Chemistry와 Physics는 GRE subject test 점수 제출을 선택으로 바꾸고 있고, Biological sciences의 경우 General test 점수마저 요구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Division of Biology and Biomedical Sciences (DBBS)*는 13개의 박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13개 전공 모두 DBBS로 지원하고 관심사가 발전함에 따라 전공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ublic Health

보건학 석사는 대부분 관련 전공자만이 지원할 수 있고, 1~3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TOEFL 100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고, 수학이나 통계 등 선수과목이나 관련 전공 분야의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SOPHAS, ADEA, AADSAS 등 공통 지원 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학교에 보낼 서류들을 구분하여 발송합니다. 원서 항목이 상당히 복잡하고 자세한 Course description이 요구되며 임상 경험을 묻는 Essay 질문이 많습니다. 또한, 추천서에 대한 비중이 크고 Interview도 까다롭습니다.

- *Master of Public Health, University of North Carolina*는 지원서를 두 번 내야 합니다. 먼저 SOPHAS에 지원서를 보내면 약 5일 후 UNC Graduate School의 링크를 받게 됩니다. 이 개별 링크에 다시 한번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ocial and Behavior Science

사회 과학 계열 중 International relations나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등은 대부분 석사과정 위주의 Professional school로 따로 개설되어 운영되며, 영어 점수와 관련 경력이 합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SOP 이외에도 Additional essay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International relations 분야 연구자로 커리어를 계획한다면 Political science 박사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Public policy는 Public administration과는 달리 Economics나 Statistics의 선수과목 조건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 *UC Berkeley*의 *Master of Public Policy*는 필수 선수과목은 없으나 지원자에게 *Introductory statistics, Calculus, and Micro-economics*을 이수했기를 권장합니다. 이 과목들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지역 전문대학이나 온라인으로라도 성적 받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STEM-Computer Science

08

미 구인구직 사이트인 Glassdoor에서는 매년 미국 최고의 직업 50을 발표합니다.¹⁾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의 직업으로 Data Scientist가, 그리고 2020년에는 Front-End 개발자, 올해 2021년에는 Java 개발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IT 관련 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op 10 Best Jobs in America for 2021

Rank	Job Title	Job Title	Job Satisfaction	Job Openings
1	Java Developer	\$ 90,830	4.2	10,103
2	Data Scientist	\$ 113,736	4.1	5,971
3	Product Manager	\$ 121,107	3.9	14,515
4	Enterprise Architect	\$ 131,361	4.0	10,069
5	Devops Engineer	\$ 110,003	4.0	6,904
6	Information Security Engineer	\$ 110,000	4.0	5,621
7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82,182	4.1	8,827
8	Mobile Engineer	\$ 94,301	4.1	4,631
9	Software Engineer	\$ 110,245	3.8	40,564
10	Dentist	\$ 134,122	4.0	4,315

Computer Science는 현재 미국에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대표적인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전공 중 하나입니다. STEM 전공자들은 학업을 마친 시점부터 전공 관련 산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취업할 수 있는 노동 허가 제도인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24개월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합니다. 비 STEM 전공자들은 일반 OPT로 1년 안에 고용주를 찾아야 하지만, STEM 전공자들은 최대 3년 동안 취업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Computer Science 석사 과정은 미국 대학원 지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입니다. 학부 전공이 Computer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수업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Computer Science 학과에서 요구하는 필수 선수 과목들을 미리 이수하거나 직장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Computer Science 석사 과정은 전공자를 우대하므로, 비전공자가 지원하기엔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2020년 University of Texas는 2445개의 원서에서 159명에게, University of Minnesota는 1600개에서 140명에게,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는 2000개에서 단 Top 10%에게만 석사 과정 합격을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Calculus, Physics, Statistics, Computer Science courses (Computer programming,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computer architecture, and theory of computation) 등 여러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3.5/4.0 이상의 학점, 100점 이상의 TOEFL, 만약 GRE를 요구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까지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경쟁률도 높으므로 이력서나 추천서에서 직장이나 필드에서의 프로젝트 수행과 코딩 능력도 보여야 합니다.

¹⁾ Glassdoor Economic Research (<https://www.glassdoor.com/research/best-jobs-in-america-for-2021/#>)

박사 지원자의 교수 컨택

09

박사 지원 과정에서 교수 컨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효율성이 없어 시간 낭비라는 사람, 지원 전 교수와 연락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사람 등등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문제일 때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학계에서 유명한 미국 대학원의 교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는 학생들로부터 일 년에 수백 통씩 이메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이메일에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목만 보고도 휴지통에 보내기도 하고, 내용을 읽었지만, 답장을 보낼 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이메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지원자가 현재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연락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STEM 계열 전공 대학원은 교육기관이기보다는 일종의 연구기관으로 교수는 연구팀장, 박사들은 연구원이 됩니다. 교수인 당신에게 본인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잘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잘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합격을 위해서는 먼저 지원자를 받아준다는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합격의 조건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공계 박사 유학에서 지원자의 연구 경험과 역량 이 학점이나 영어 성적 등의 다른 요건보다 우선시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 대학원의 원서나 SOP 질문에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교수의 이름과 그 이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모든 교수가 해당 연도에 박사 지원자를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선발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서에 기재한 교수가 박사 모집 계획이 없는데, 그 교수와 연구하고 싶다고 SOP에 쓴다면 합격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 컨택을 통해 웹에서 찾은 정보가 맞는지, 실제 연구실 상황이나 편입 가능성도 확인해서 이 학교에 원서를 제출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판단 근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교수 컨택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시다. 먼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교수를 찾아야 하는데, 학과 홈페이지 'Research'나 'Faculty,' 'Laboratory' 섹션에서 박사과정에서 하려는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수의 프로필과 이력서, 최근 논문 실적 등을 살펴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학교별 교수 리스트가 정리되었다면 컨택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총 세 단락을 넘지 않게,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와 그 분야가 어떻게 교수의 연구와 잘 매치되는지,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씁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첨부해 보냅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대학 내 두 명 이상의 교수에게 동시에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지나도 답변이 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Follow-up email을 보내 보고 그래도 답이 없거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두 번째 교수님에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과 홈페이지에 지원 전 교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 컨택은 많은 교수에게 무작위로 이메일 연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박사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되었으면 하는 교수를 찾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히 찾아보고 걸러진 분들에게 본인이 함께 일할 만한 우수한 지원자라는 좋은 인상을 주어 합격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노력입니다. 무엇보다 원서 지원 전 교수 컨택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어떤 답변을 받는다고 해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박사 지원자의 교수 컨택,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학비와 장학금

CHOOSING THE RIGHT PROGRAM

학 비

미국 대학원은 합격도 어렵지만 합격이 된다 해도 비싼 학비 때문에 목표했던 학교의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 학비는 주립대인지 사립대인지, 어떤 단과 대학 소속인지, 위치한 지역은 어디인지에 따라 연간 \$20,000~\$60,000 정도로 다양합니다. 보통 외국 학생의 경우 지원 시 재정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재정 보증인이라면 Academic Year 9개월 동안 (여름 방학에 미국에 남을 경우는 일 년)의 학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예치된 부모님 계좌의 영문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Affidavit of Support form과 함께 보냅니다.



학 교 명	2020/21 Academic Year Out of State Tuition
Stanford University	\$57,861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52,098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9,140
Purdue University	\$29,132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Champaign	\$36,150
University of Texas-Austin	\$19,320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University Park	\$39,720

2022 US News Ranking Best Engineering Schools²⁾ 기준

장학금

미국 대학원 박사 지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장학금입니다. 소위 말하는 '풀 펀딩 (Full funding)'은 조교로 일을 하고 학비와 의료보험을 면제받고, 일주일 약 20시간 정도 근무 조건으로 생활비(Stipend)까지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COVID-19으로 인한 학교 측의 재정 상황 악화, 연구비 삭감으로 외국 학생들에게 펀딩 없는 박사 합격 사례가 늘었습니다.

장학금은 단과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데 자연대와 공대는 인문이나 사회과학, 교육대 등과 비교해 월등히 좋은 편입니다. 전공이 속해 있는 단과 대학과 학과, 해당 교수에 따라 예산 기금, 운영 및 수여 방식 등이 다릅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서에 있는 장학금 신청란에 간단히 지원 여부를 표시하면 됩니다. 장학금은 합격 발표와 동시에 결정이 나는 곳도 있고, 합격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나중에 통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학금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나 교수에 따라 보유 펀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학교에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 순위가 높다고 해서 장학금 받기가 어렵고 순위가 낮다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박사의 경우, 특히 본인의 연구와 강의 경력을 이력서에 잘 정리해서 지원 전 해당 분야의 교수에게 꼭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박사 1년 차에는 학과에서 TA를 주고 이후 Qualification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에게만 교수가 RA를 주는 학교도 많은 만큼 TA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TOEFL Speaking 25점 이상의 점수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egular 마감일보다 보통 한 달 정도 빠른 Financial Aid 지원 마감일에 맞추어 원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²⁾ 2022 US News Ranking Best Engineering Schools (<https://www.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engineering-schools/eng-rankings>)

Top 10 Engineering schools와 NO GRE

11

전체 미국 대학원 유학생 중 공대 지원자는 24%를 차지합니다. 전통적으로 GRE, 특히 Quantitative Reasoning 점수는 공대 지원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합격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동안 GRE가 요구되지 않았던 공대 대학원 프로그램은 그 위상이나 순위가 뒤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지원 경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 US NEWS 공대 대학원 랭킹³⁾에서 1위인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도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를 제외하고 모두 2022년 가을학기 지원에 있어 GRE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 학교의 2022년 입학 지원 요강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2021년 7월 5일 현재, 상당수의 학교가 GRE 필수가 아닙니다.

순위	학교명	학과명	GRE for Fall 2022
1위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No GRE
		Chemical Engineering	No GR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No GRE
		Comput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No GRE
		Mechanical Engineering	No GRE
		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No GRE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2위	Stanford University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No GRE
		Bioengineering	No GRE
		Chemical Engineering	No GR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No GRE
		Computer Science	GRE is required for MS
		Electrical Engineering	No GRE
		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GRE is optiona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Mechanic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Engineering	GRE is required		
3위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Not yet confirmed
		Bioengineering	GRE is optional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s	No GRE
		Industrial Engineering and Operations Research	Not yet confirm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o GRE
		Mechanic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Nuclear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³⁾ 2022 US NEWS 공대 대학원 순위 (<https://premium.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engineering-schools>)

Top 10 Engineering schools와 NO GRE

12

순위	학교명	학과명	GRE for Fall 2022
공동 4위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Aerospace Engineer	Not yet confirmed
		Medical Engineering	No GRE
		Applied Physics and Materials Science	Not yet confirmed
		Computing and Mathematical Sciences	Not yet confirmed
		Electric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No GRE
공동 4위	Carnegie Mellon University	Mechanical and Civil Engineering	No GRE
		Biomedical Engineering	No GRE
		Chemical Engineering	No GR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공동 4위	Stanford University	Mechanic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Not yet confirmed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No GRE
		Biomedical Engineering	No GRE
		Chemic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Civil Engineering	GRE is optional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Not yet confirmed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GRE is optional
		Engineering Education	Not yet confirme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ngineering	No GRE
		Industri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Materials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7위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Mechanical Engineering	GRE is required
		Nuclear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Aerospace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Biomedical Engineering	No GRE
		Chemical Engineering	No GR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Climate and Space Sciences and Engineering	GRE is optional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GRE is optional
		Industrial and Operations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Integrative Systems + Design	No GRE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Mechanic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Engineering	GRE is required		
Nuclear Engineering and Radiological Science	Not yet confirmed		

Top 10 Engineering schools와 NO GRE

13

순위	학교명	학과명	GRE for Fall 2022
8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erospace Engineering	GRE is optional
		Biomedical Engineering	No GRE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No GR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RE is required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GRE is optional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GRE is requir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Mechanic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Nuclear and Radiologic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9위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	Bioengineering with a Medical Specialization	GRE is required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GRE is optional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GRE is required for MS & GRE is recommended for PhD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Nano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Structur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10위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Champaign	Aerospace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Bio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No GR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RE is required
		Computer Science	GRE is recommended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Systems and Entrepreneurial Engineering	GRE is recommended for MS & GRE is required for Ph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ot yet confirmed
		Mechanical Science and Engineering	No GRE
		Nuclear, Plasma, and Radiological Engineering	GRE is optional

공대는 다른 전공에 비해 RA나 TA를 받을 확률이 높은 편으로, Lab, 논문 등의 연구 경력이 많을수록 합격에 유리합니다. GRE라는 척도가 사라진 이상 관련 연구 경력이나 논문 등의 강점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력서나 SOP에 Quantitative background를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사의 경우, 교수 컨택을 꼭 하시고, 리서치 핏이 맞다면 본인의 장점을 살려 소신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PA (Grade Point Average)

미국 대학원의 Admission committee는 여러 명의 교수로 구성되어있고, 몇 단계의 심사과정을 통해 학문적 성과를 낼 만한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그들은 최상위 후보를 선택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즉, 합격자 평균보다 낮은 학점 특히 Minimum 요구학점에도 미치지 못한 지원자는 첫 Screening 단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니다. 높은 학점이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낮은 학점은 원서 심사 과정 중 첫 Cut-off의 기준이 되는 Negative filter로서 작용합니다.

● 미국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Minimum GPA

보통 심사에서는 상향 평균화되어 있는 대학원 학점보다 대학 학점이 더 중요한데, 이는 최소 4년 동안 지원자의 Academic interest, 학업 성취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교해 TOEFL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Minimum을 넘으면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유학생의 경우 GRE는 지원자 간 변별력이 크지 않고 COVID-19의 영향으로 면제나 선택으로 바뀌어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원에서 입학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Minimum 대학 GPA는 3.0~3.2/4.0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위 대학원 프로그램에 합격한 지원자들의 평균 GPA는 3.5~3.8 정도로 더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4학년 전체 GPA가 아닌 3~4학년 GPA만을 심사하는 대학원도 많습니다. 전체 GPA인 'Cumulative GPA'보다는 3~4학년 GPA인 'Major GPA'가 더 높은 학생들을 고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1~2년은 대학 생활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했고 이것이 'Cumulative GPA'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을 감안해주는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심화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에 집중해 심사합니다

● 낮은 GPA = 불합격?

학점이 낮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학점이 낮다면 Minimum 학점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저학년에는 학점이 좋지 않았지만 차츰 성적이 향상되었다면 3~4학년 학점만을 심사하는 학교로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면, 졸업을 한 학기 늦추더라도 낮은 학점의 과목을 재수강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선수과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반드시 수강하도록 합니다. 이미 졸업 상태라면 학점은행제나 온라인 수업, 혹은 직장이나 타 기관에서 전공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입학 심사는 Holistic review로 GPA뿐만 아니라 GRE, TOEFL, SOP, 추천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학과에 가장 적합한 학생을 뽑습니다. GPA가 낮더라도 졸업 후 해당 분야의 논문이나 경력이 있다면 충분히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GRE는 지원자가 대학원 공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므로 요구한다면 고득점을 받도록 합니다. 추천인이 추천서에 지원자의 Academic & Research potential을 명시해 주면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SOP를 통해서 대학 때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음에도 왜 대학원에 진학하려는지 구체적인 동기를 밝히고 장차 학업이나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정 기간만 성적이 낮다면 원서 Additional comments 항목에 낮은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건강, 가족, 재정, 취업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Admission committee를 설득할 만한 내용이고, 해당 학기 이후 성적이 향상되었다면 합격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15

TOEFL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공부에 필요한 영어를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섹션 별 30점씩, 만점은 120점입니다. 응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TOEFL iBT Home Edition으로 집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서 마감일 기준, 최소한 3주 전에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은 미국 대학원 지원일 기준이 아닌 입학일 기준으로 2년입니다.

시험 당일 Reading과 Listening 섹션의 비공식 점수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섹션의 점수는 6일 후에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1일부터 TOEFL 점수를 각 학교에 reporting 할 때, 보내고자 하는 점수를 포함, 최근 2년 내 응시한 모든 시험의 섹션 별 최고 점수만을 모은 'My Best Score'까지 함께 기재된 성적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My Best Score'를 입학 심사에 고려하는 미국대학원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지원 시 요구되는 Minimum TOEFL 점수는 학교나 학과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고, 섹션 별 Minimum 점수를 추가로 요구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2021년 지원 기준, 대표적인 미국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Minimum TOEFL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명	Minimum TOEFL requirement
University of Maryland	96 (W24 / S22 / R26 / L24)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90 (W20 / S20 / R20 / L20)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University Park	80 (S19)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90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87 (W25 / S24 / R21 / L17)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Champaign	79~102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84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79 (W21 / R19)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92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90 (W20 / S20 / R20 / L20)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90 (each section 19)
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	92

2021년 가을학기 지원자는 COVID-19로 인해 GRE 점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OEFL에 비중이 더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TOEFL과 IELTS 말고도 일시적으로 Duolingo 점수도 인정되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Duolingo는 TOEFL iBT 보다 응시료가 저렴하며 시험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짧고 비교적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지원에 유리했습니다.

큰 성장을 보인 Duolingo를 의식해서인지 ETS는 Duolingo처럼 응시료를 낮추고 시험 시간을 줄인 TOEFL Essentials라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시험을 202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시험이 미국 대학원 지원에 인정된다면 많은 지원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지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022년 가을학기 입학에 TOEFL Essentials을 인정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학교는 없으므로, 각 학교의 2022년 가을학기 지원 요강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GRE (Graduate Record Examinations)

HOW TO PREPARE A WINNING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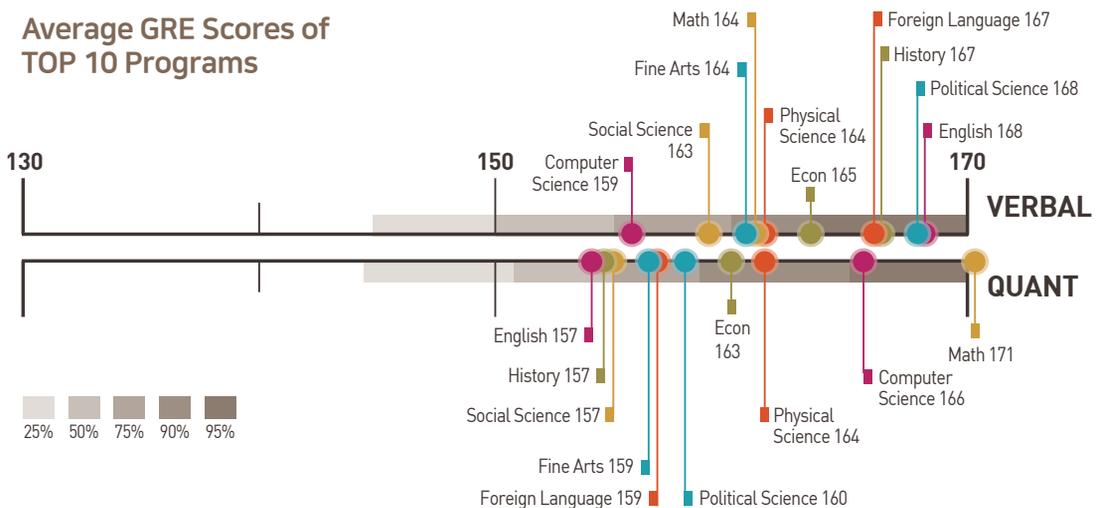
GRE는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에게 요구되는 시험으로 General test와 Subject test 두 종류가 있습니다. General test는 Verbal Reasoning과 Quantitative Reasoning 섹션은 각 130~170점, Analytical Writing 섹션은 0~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erbal Reasoning과 Quantitative Reasoning 점수는 응시 당일 확인 가능하며, Analytical Writing 점수까지 포함한 성적표는 10~15일 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E 점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첫 번째 시험 날짜로부터 12개월 동안 총 5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다음 시험은 21일 이후에 응시 가능합니다. GRE는 최소 점수 요구보다는 단순히 제출하라는 규정이 더 많지만 미국 학생들과 동등한 틀에서 외국인 지원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원서 마감일 기준, 최소한 4주 전까지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많은 미국 대학원이 2021년 가을 학기 지원자에게 한시적으로 GRE를 면제했기 때문에 한국의 GRE 응시자 수는 2020년 5,034명으로 2019년 7,271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⁴⁾ 그리고 2022년 가을학기 지원은 7월 중순 현재, GRE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많고, 아직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2022년 지원 규정이 업데이트되는 8월경까지 면밀히 학교들의 지원 요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일주일 내내 응시 가능한 GRE General Test at Home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등록비, 내용, 형식, 난이도 및 채점 방식에서 기존의 시험장 시험과 동일하지만 온라인 감독관의 실시간 모니터링 하에 집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단, GRE Subject test는 Home option이 없습니다.

ETS 'A Snapshot of the Individuals Who Took the GRE General Test'⁵⁾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2019 응시자 총 532,826명의 GRE 평균 점수는 Verbal 150.3, Quantitative 153.7, Analytical Writing 3.6이라고 합니다. 또한 GRE는 지원 전공에 따라 특정 섹션의 점수가 중요한데, Engineering 분야에서는 Quantitative Reasoning, 인문 사회 계열의 전공에서는 Verbal Reasoning과 Analytical Writing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모의고사 사이트인 Magoosh의 전공별 Top 10 School 합격자의 GRE 평균 점수⁶⁾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Average GRE Scores of TOP 10 Programs



4) GRE Volumes by country (https://www.ets.org/s/gre/pdf/gre_volumes_by_country.pdf)
 5) GRE Worldwide Test Taker Report (https://www.ets.org/s/gre/pdf/snapshot_test_taker_data_2019.pdf)
 6) GRE Score Range: What's a Good GRE Score? (<https://magoosh.com/gre/gre-score-range-good-gre-score/#program>)

이력서 (Resume)

17

이력서는 지원자의 모든 Academic과 Professional 경험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력서를 다른 어떤 지원 서류보다 먼저 작성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과거 경험과 성과를 정리하면서 지원자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추후 지원학교 선정과 SOP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박사 지원자는 교수 컨택 시 이력서를 첨부해서 보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원용 이력서는 일반 이력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통 한 장으로 작성하는 구직용 이력서와는 다르게 대학원용 이력서는 석사 2~3장, 박사 3~4장 분량이 평균입니다. 단 Business school의 경우는 한 장으로 요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과거 수행했던 연구와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박사는 Research experience와 Publication, 석사는 연구 경력이 없더라도 전공 관련 수행 프로젝트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는 대학원 합격자를 뽑는 데 쓰일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Fellowship이나 TA/RA 자격 조건을 검토하는 데도 쓰입니다.

이력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순서가 있나요?

지원 프로그램마다 이력서 형식을 별도로 정해 놓기도 하니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경력과 비 연구 경력은 각기 다른 섹션으로 나누어 기술합니다. 기본적인 이력서의 순서는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Research interest (희망 연구 분야), Education (대학, 대학원, 교환학생, 학점 이수 기관, 전공, 학점), Research experience (Lab, Project, 구체적인 업무, 성과, Supervisor), Teaching experience (TA 담당 과목, 업무, Supervisor), Publications (국내외 학회 논문, 학회), Professional accomplishments (회사 내 프로젝트, 성과), Academic achievements (장학금, 석차, 대회 수상), Other credentials (자격증, 멤버십), List of skills (컴퓨터나 외국어) 순입니다. 하지만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Licensing/Certification, Grants, Extracurricular activities, Language skills, Computer skills 등을 따로 구성하거나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지원에 별도로 추천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Reference 섹션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이력서 형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영문 이력서는 10~12폰트로 Times New Roman이나 Ariel의 서체가 보통 이용됩니다. 글자에 블록을 잡거나 밑줄이나 명암 처리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형식을 통일합니다. 예를 들어 Mar 2020으로 월을 줄여 썼는데 다른 부분에서 September 2019로 월을 길게 표현한다면 들어쓰기의 칸수가 일정하지 않아 보인다면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이력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아래 양옆 여백 마진의 통일에도 유의합니다.

이력서 작성에 있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나요?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삼갑니다. Cum laude distinction을 Education 섹션에 이미 기재했다면 Academic achievements 섹션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별, 나이, 사진, 결혼 여부 등 개인적인 내용 역시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에 맞는 본인의 강점이 뭔지 파악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읽는 Admission committee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력서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연구 주제라는 큰 틀에서 이력서, 학업 계획서, Writing sample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연구 주제와 관련한 경험과 성과 등은 앞부분에 배치해 강조하고 기타 불필요한 정보는 배제해 이력서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SOP (Statement of Purpose)

18

학업계획서, 즉 SOP (Statement of Purpose)는 미국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상세하게 기술하는 연구계획서입니다. 모든 내용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 범주를 벗어난 다른 내용을 쓰는 것은 글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아니기에 연구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아무리 뛰어난 지원자의 다른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SOP는 왜 중요한가요?

SOP는 입학심사 과정에서 GPA, TOEFL, GRE 등 오로지 수치로 평가되는 1차 리뷰가 끝난 후 'Tie-Breaker'의 역할을 합니다. 거르고 거른 비슷한 조건의 지원자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는 최종 합격 여부가 SOP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도 몇 달씩 준비하여 Writing center나 Mentor의 Feedback을 받아 여러 번 수정할 정도로 공을 들입니다. Admission committee는 SOP를 통해 지원자의 전공 분야에 대한 자질, 경험, 연구목표, 학교 선택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열정을 갖추고 연구 수행의 의지가 있는 준비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SOP에 들어가야 할 4가지 요소와 내용상 강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SOP는 크게 Commitment (연구 관심 분야와 그 이유), Preparation (지원자의 경험과 준비), Fitness (학교 선택의 이유)와 Vision (졸업 후의 Career goal)의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내용상, 서두, 특히 첫 문장은 모호하게 기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유행이었던 인용 어구로 시작하는 것도 삼가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언급하고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 쓰고, 혹시 아직 구체적인 연구 분야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 프로그램의 Specialized area라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 분야와 관련한 본인의 연구 경험에 대해 진솔하게 작성합니다. 선별된 예시를 가져와서 본인이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원자의 연구자로서의 호기심, 인내, 성실성 등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 어떤 교수와 같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이 프로그램, 이 학교가 내 연구에 있어 어떤 Fit을 보이고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써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이유는 Admission committee가 본인을 선택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Academic goal 또는 Vision을 가졌는지 알려야 합니다. 예로 단순히 장차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쓰기보다는 장기적인 연구 목표를 적고 그 분야와 지역 사회로의 헌신 같은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도록 합니다.

SOP의 분량과 검토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나요?

대학원마다 SOP의 분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SOP의 분량은 500 Words 내외 (Times New Roman or Arial 12pt. font size, 1 Page single-spaced or 2 Pages double-spaced) 정도입니다. 허용되는 분량이 많지 않으니 이력서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가져와 반복하는 것은 삼가합니다. 연구 경력이 많은 이공계 학생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골라 쓰시기를 바랍니다.

간결하고 효과적인 SOP를 작성한다는 것은 반복 수정의 결과물입니다. 작성 이후에는 추천인이나 선배, 친구 등의 의견을 받아봅니다. 제출 전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지도 반드시 점검합니다.

PHS (Personal History Statement)

19

몇몇 대학원은 SOP 외에 PHS까지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 등이 PHS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왜 이 학교들은 SOP와 더불어 PHS를 요구할까요?

학교 측은 되도록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 계획 중심으로 기술된 SOP 만으로는 지원자가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력서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역시 지원자 스스로 본인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HS에는 대학원 측에서 알고자 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지원자의 성장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장애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있었다면 Admission Committee가 이를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재정이나 건강, 다른 어려움 때문에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면 PHS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언급해볼 만합니다. 단, 충분히 공감되는 사유여야 합니다.

PHS 작성을 위해 먼저 아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대학원에서 평등의 문제는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나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Asian으로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신자들이 많고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규범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가족 배경도 생각해 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는지, 다문화 가정인지,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던 경험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 보세요. 혹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젠더 이슈가 있는지, 남과 다른 특이한 경력이 있는지 등 개인적인 부분들도 고려합니다.

둘째,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일괄적인 서술보다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더 인상적입니다. 과거 힘든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리더십과 팀워크가 가미된다면 글은 더 드라마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Community service도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자원봉사나 군대 경험도 좋습니다. 성과가 없었더라도 어떤 전환점이 나에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리더인지, 창의적인지, 논리적인지, 위기에 차분히 대처 가능한지, 어떤 신념으로 움직이는지, 박애주의자적인 성격은 아닌지 따져봅니다. 과거 힘든 역경을 헤쳐오면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언제나 다른 방향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남들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준 사람, 컴퓨터를 누구보다 잘 다루는 사람, 리더십의 소유자, 힘들어도 유머를 잃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 등등 학교가 뽑고 싶은 인재라는 걸 어필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성향이 어떻게 앞으로의 대학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지, 또한 학교 구성원으로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연결해서 적어 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PHS는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글에서 보이는 근거, 특히 불평등, 장애, 역경 등의 시련은 충분히 타인도 공감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자기주장에만 치우치면 인상적인 PHS라 할 수 없습니다. SOP에서는 내보일 수 없었던 자신만의 매력을 최대한 드러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20

미국 대학원 지원 시 제출해야 할 여러 서류 중 지원자가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교수나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추천서입니다. Admission committee는 지원자의 학업이나 연구 능력을 옆에서 지켜본 추천인의 평가와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추천서 하나만으로 합격 당락을 뒤집기는 어려울지라도 비슷한 상위 지원자들 사이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추천서,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나요?

미국 대학원에서는 보통 3통의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최소 2명은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았던 Faculty member나 Academic advisor에게서 받으라고 요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추천인이 현재 퇴직 상태이거나 다른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인 자격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 경력이 강점인 지원자는 현 직장의 상사로부터 한 통의 추천서를 받아 최근의 업무성과를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박사 지원자라면 석사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석사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입학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이득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부탁드려야 할까요?

마감일 기준 최소 두 달 전부터 추천인에게 유학 준비나 학교 선정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마감일이 임박해서야 추천서 부탁을 한다면 좋은 내용의 추천서를 받기 어렵고 혹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기보다는 해당 교수의 연구실에 방문해서 연구와 진로 계획을 상의하면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교수님은 보통 강의 이외에도 연구와 대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추천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추천인과의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수록 좋은 추천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좋은 내용의 추천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좋은 추천서의 가장 큰 목적은 구체성입니다. 추천인이 지원자에 대해 많이 알수록 추천의 이유가 상세하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지원할 학교 목록과 마감일, 이력서, 성적표, SOP 등을 추천인에게 참고 자료로 미리 드립니다. 특히, 지원자가 이력서와 SOP에 쓴 연구 내용에 부합하는 추천인의 긍정적인 평가가 언급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명의 다른 추천인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자에 대해 강조하는 바를 달리해 학교로 하여금 지원자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서는 어떻게 제출하게 되나요?

추천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지원자가 온라인 원서의 추천서 섹션에 각 추천인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지원 학교에서 직접 추천인에게 관련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이메일 발송 시기를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원서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이메일이 추천인에게 전달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받은 추천인은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해서 질문에 답변 후 미리 작성한 추천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텍스트를 따로 붙여야 합니다. 이때 업로드하는 추천서 파일은 WORD 나 PDF 형식입니다.

학교에서 모든 추천서를 받을 때까지 Follow-up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추천인이 온라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습니니다'라는 내용을 지원자의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미국 대학원 지원 서류 중 마감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가장 빈번한 Missing 서류가 바로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안내메일이 발송되었으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추천인이 있다면 Reminder mail을 보냅니다. 온라인 원서 사이트나 Status check 사이트에서 추천서 complete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서 (Application)

21

미국 대학원의 가을 학기 온라인 원서 오픈 시기는 보통 입학 전 해 8~9 월경입니다. 이때 미리 원서 계정을 만들어 전체적인 원서 구성과 질문들을 확인하고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나 특이 사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장학금 신청의 경우 추가 에세이나 별도의 신청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 SOP, PHS는 첨부 파일의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니 PDF 형식으로 바꿔 준비합니다. 성적표와 영어 시험 점수 결과도 스캔해서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제출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여러 번 검토합니다.



원서 마감은 일반적으로 12월부터 1월 사이지만 간혹 학교에서 마감일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기도 하니 종종 학과 사이트를 방문해 변동된 사항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추천서와 TOEFL, GRE 등은 지원자가 직접 보내는 서류가 아니라 추천인과 ETS에서 각각 발송하기 때문에 마감일 전까지 학교에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서를 제대로 발송해도 학교 측에서 서류를 분실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Missing item이 많이 생깁니다. 이는 지원자가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것과 학교 측에서 모든 서류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원서 발송 후 학교에서는 지원자에게 현재 원서의 Status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 주는데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제출한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보완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이 한두 달 정도 빠른 편이고, Priority deadline이나 Early notification application deadline, Early action deadline 등으로 마감일이 구별되어 있다면 일찍 지원하는 것이 합격에 있어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원서 제출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원서를 일찍 보내면 아래와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 ❶ Missing 서류 발생 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특정 시기에 많은 원서가 몰려 보내지다 보니 학교 측이 학생 파일을 생성, 정리하는 과정 중에 분실되거나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❷ 일찍 결과를 통보받아 추가 지원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지원하면 12월 전에 합격했다는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지원자는 이미 합격이 된 학교를 기준으로 하위권 학교 지원은 생략하고, 마감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다른 상위 학교들로 추가 지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 ❸ 수시로 원서를 심사하거나 마감일이 Regular 또는 Priority로 이원화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빠른 지원이 더욱 유리합니다. 해당 학교가 마감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사하는 Rolling admission 방식을 사용한다면 원서가 도착하는 대로 심사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보통 8~10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런 학교에 원서 마감일이 임박해서 원서를 보낸다면, 이미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장점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입학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원자에게만 해당합니다. TOEFL성적이 Minimum 점수보다 부족하거나 3통의 추천서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일찍 지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구하는 모든 서류가 'Complete' 되어야만 원서 심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Interview)

22

미국 대학원 합격의 최종 관문은 Interview입니다. 전공과 학교에 따라 박사 지원이라 하더라도 Interview가 없는 학교도 있고, 석사 지원에도 Interview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원서 제출 후 Interview invitation을 받았다면, 일단 축하합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 3~5배의 지원자만이 Interview invitation을 받습니다.

외국 학생은 보통 Zoom이나 Skype 등 화상으로, 특정 교수와 1:1 혹은 여러 교수진과 보통 20분~1시간 정도 Interview를 하게 됩니다. Interview에서는 해당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연구 성과를 낼 만한 열정과 능력이 있고 함께 연구하기에 적합한 자질까지 갖추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terview invitation 이메일은 빠르면 지원 마감 후인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받으며, 24시간 이내에 인터뷰 일정에 대한 답을 보내야 합니다. 인터뷰 요청부터 실제 인터뷰 일정까지 짧으면 2~3일, 길어야 일주일 남짓 정도만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 박사 지원자들은 원서를 제출하자마자 인터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와 인터뷰를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했던 연구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영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차 하고 싶은 연구나 공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학교는 왜 지원하는지 등에 관한 생각도 정리합니다. 각 프로그램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Interviewer가 최근 출간한 논문이나 학술지 내용을 통해 연구 성향이나 방향을 파악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 간단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Top 10 Graduate School Interview Questions⁷⁾

- ① Why do you want to go here, instead of other schools?
- ② What are your research interests?
- ③ How will you contribute to our program?
- ④ What are your short-term and long-term career goals?
- ⑤ What do you see as the major trends in your field of study?
- ⑥ Tell me about you achieved a significant accomplishment?
- ⑦ Lists some of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 ⑧ Tell me about your hobbies and interests.
- ⑨ Where else have you applied?
- ⑩ What questions do you have for me?

Interview script를 작성한 다음 검수를 받고 외울 정도로 숙지한 후, Native coach와 화상으로 모의 인터뷰 연습을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이크나 헤드셋 성능을 점검하고 실제 Interview 환경을 만들고 연습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어 문제점을 교정합니다. 미리 철저히 준비되 너무 외운 듯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답형으로만 답변하거나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Interviewer에 대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준비합니다.

리더스 유학에서는 Native coach와 함께 Interview script 작성 및 검수, Mock interview, Feedback으로 구성된 'Grad School Interview Preparation Progra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⁷⁾ Top 10 Graduate School Interview Questions (<http://www.gradschools.com/get-informed/applying-graduate-school/graduate-school-interview/graduate-school-interview-ques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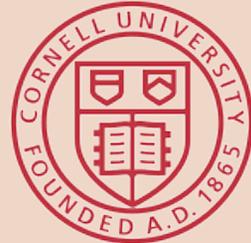
2021년 합격자 후기

리더스유학 홈페이지에서 240여개의 Testimonials을 확인하세요. 23

한번의 좌절 후 재도전 성공기

김OO - Ph. D. in Computer Science

Cornell University
(full funding)



저는 작년에 혼자 유학을 준비했다가 all reject을 받고 올해 다시 준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어느 정도는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실적을 보완한 것입니다.

최근 CS 입시가 너무 치열해지면서 지원하는 학생 스펙도 많이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top conference 논문이 몇 개씩 있어도 탑 스쿨 어드미션을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연구 실적을 만드는 데에 집중했고, 이것이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연구 실적이 없을 때보다 SOP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쓸 수 있었고, 인터뷰에서도 이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SOP를 보완했습니다.

저는 학점이나 영어 성적 등 정량적인 스펙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SOP에서 제 장점을 보여주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이번에 느낀 점은 미사여구를 붙인 유려한 글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자신 있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글이 훨씬 powerful하다는 점입니다. 리더스의 editor분이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서 SOP를 교정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박사를 선발할 때에는 리서치 핏이 맞는지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느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교수님과 미리 연락을 하거나 그 교수님의 연구 방향에 맞게 SOP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입시를 두 번 준비하면서도 이 학교에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학교에서 리젝을 받기도 하고 상향 지원한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학 입시에 많은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이겠지요. 가능한 다양한 학교에 지원해서 위험 부담을 낮추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량적인 스펙이 결코 모든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보며 기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변에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작년에 혼자 준비할 때는 많이 막막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유학원에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다가와야 일하는 성격이라 스케줄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하지만 유학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결국 본인이 주체가 되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강점이 있고, 이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합격자 후기

리더스유학 홈페이지에서 240여개의 Testimonials을 확인하세요. 24

여러 변수에도 전문적인 대처를 보여준 리더스

신00 - Master of International Affairs

Columbia University



미국에서 학사 4학년 도중 코로나가 터지고 저는 급작스레 한국에 들어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했고 밤과 새벽에는 수업을 병행해야 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인턴십과 공인시험(GRE와 IBT TOEFL) 등에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학원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수의 유학원을 조사하고 상담을 거친 후 고심한 끝에 리더스 유학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더스 유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변수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해주는 것과 원활한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변수가 있었으나 admission process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이는 미국 학사 지원 때에도 느꼈던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requirement/eligibility와 실제로 admission office에서 원했던 것이 달라 당혹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매우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리더스 유학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변함없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디렉팅을 해주어 덕분에 저 또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연장선으로 리더스 유학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피드백은 유학을 준비하는 약 8개월 동안 제게 든든한 조력이 되었습니다. 유학원에서는 Statement of Purpose(SOP) 뿐만이 아니라 학교별 에세이의 아웃라이닝과 프레임을 함께 잡고 외국인 검토까지 매우 꼼꼼한 작업을 거칩니다. 리더스 유학원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자 감사한 부분은 마지막 두 학교를 기존에 완성되어 있던 SOP에서 급하게 내용을 한 단락 추가하고 수정하였는데 이에 너무나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원서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에세이를 쓰면서 생각도 변하고 그에 따라 내용이 추가되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세심한 피드백과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원 admission process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들은 SOP와 추천서라고 생각합니다. SOP는 능동적인 리서치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소신 있는 생각, 활동, 계획이 대략 한 페이지의 글에 얼마나 강하게 묻어나는지가 관건인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추천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GPA가 엄청나게 높지도 않고 GRE 점수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항상 학사 졸업 후 석사를 바로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사를 하는 동안 교수님들과 매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냈는데 2년 내내 학기 중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분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제가 Liberal Arts College를 다녔기 때문에 좀 더 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천서를 써 주신 교수님 세 분은 당사자인 저만큼이나 제 지원 과정과 추천서에 열정적이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많은 기회와 자원이 있습니다. 올해 유학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2021년 합격자 후기

리더스유학 홈페이지에서 240여개의 Testimonials을 확인하세요. 25

TESTIMONIALS

구체적인 연구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의 중요성

최OO - MPH in Global Health
Emory University



EMORY
UNIVERSITY

저는 국내에서 관련분야 석사과정을 마친 후 5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의료진과 co-work을 통해 접하였던 질병 역학 연구와 예방의학에 깊은 관심이 생겼고 긴 고민 끝에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사회생활을 하다가 특정 분야의 호기심과 열정에 의해 학계로 발자취를 옮기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각자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큰 용기를 내셨을 분들 모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유학 준비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학 준비를 시작할 때 본인의 연구 흥미와 졸업 후 진로와 연구 방향을 최대한 구체적이면서 좁은 범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거나 교수 컨택 시 방향이 흔들릴 수 있고 결국엔 점수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public health 전공 중에서도 metabolic disease의 nutritional intervention 연구에 집중해서 유학 준비의 첫 과정인 학교 서치, 교수/랩 컨택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였고 SOP, PHS를 스토리텔링 할 때에도 저의 역량(스펙, 연구 경험, 일 경험 등)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일관되고 잘 정리된 글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Public Health 학과는 의과대학에 소속되거나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MPH 또는 Ph. PH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함께 수업을 듣고 연구하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연구 경험이나 일 경험을 통해 넓은 견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SOP나 인터뷰에서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학교의 박사과정(떨어졌지만^^) 인터뷰 당시, 랜덤으로 배정된 교수님께서 저의 연구/일 경험이 본인의 연구 또는 저의 연구목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연구 흥미와 앞으로의 진로 계획 목표를 확고히 하시기를 거듭 강조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유학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지만 일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영어 공부, 학교 서치, SOP, 추천서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영어점수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플 점수에 아쉬움이 커서 11월 초까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영어공부와 SOP, PHS, 추천서, 입학 서류(성적표, WES 등),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추가서류 등을 함께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OP만 해도 한 학교 당 10회 이상의 첨삭, 수정, 영문 프롬을 거쳐서 완성했고 지원 학교 수가 많을수록 학교마다 요구사항,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 시간 관리는 마지막까지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유학을 결정하셨다면 가능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다하여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학생을 위한 인프라, 합격생 비율이 감소되는 것이 너무나도 체감되는 이 시기에 유학원의 도움으로 저만의 차별화된 SOP와 전략을 가지고 6개의 학교에 합격하였고 제 마음의 1순위가었던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합격자 후기

리더스유학 홈페이지에서 240여개의 Testimonials을 확인하세요. 26

리더스와 함께한 반년

조OO - MS in Business Analy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 San Diego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Business Analytics 석사 과정을 준비하게 된 학생입니다. GRE 점수도 낮고, 인턴과 같은 경력도 없었지만 지원 한 학교의 거의 모든 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방문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유학 수속을 도와주신 박은정 실장님과 장혜정 대리님의 도움 덕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리더스 유학을 택한 이유]

저는 작년 여름 방학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던 때,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듯 처음에는 대형 유학원에 방문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높은 GRE를 얻어내야 한다'라는 틀에 박힌 답변을 들으며 유학원 별로 차별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Business Analytics는 과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원들은 이 학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격 외에 어떠한 차별점을 찾을 수 없었던 중에 GRE 시험장에서 리더스 유학 안내 책자를 보게 되어 상담을 예약하였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리더스 유학이었지만, 방문 상담 만족도는 타 유학원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원장님께서 Data Science, Business Analytics, Data Analytics 등 각 과정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셨으며, 저의 낮은 GRE 점수와 경력이 없다는 단점에 대해 틀에 박힌 답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타 업체의 특별한 장점을 찾지 못하던 저에게는 이 기회를 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더스 유학과 함께 한 반년]

리더스 유학과 함께 반년간 입시 준비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SOP는 물론이며, 인터뷰 준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찾아온 예상 인터뷰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세세하게 첨삭도 해 주시며,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지내느라 방문 상담을 하지 못하는 만큼 리더스 유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학교 search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까다로운 조건을 요청하였음에도 최대한 반영하여 찾아 주셨습니다. 반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였지만, 많은 도움 덕에 합격한 4곳의 대학원에서 모두 장학금 offer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이며, 유학원 선택에 대한 고민이 큰 비중을 차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스 유학과 함께 한, 저의 반년은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한 유학원이 아닌,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저를 도와주신 리더스 유학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합격자 후기

리더스유학 홈페이지에서 240여개의 Testimonials을 확인하세요. 27

GRE 없이 교수 컨택으로 풀펀딩 박사 합격

김OO - Ph.D. in Bioengineering and Biomedical Engineeri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full funding)



저는 토폴 성적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낮고 (94점), GRE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GRE가 이번 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다수의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뿐 만 아니라, GPA 또한 3.82/4.5 (학부), 4.44/4.5 (석사)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또는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스 유학과 함께한 3학교 중 2학교에서 Ph. D. full funding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연구 경험과 실적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저는 GPA와 영어 성적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경험과 실적 부분에서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석사과정 당시에 다양한 국가 그리고 산학 과제 참여 경험은 경쟁력 있는 SOP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과제 참여 경험 덕분에 연구 성과에 있어서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지원 당시에 총 연구 성과로는 top-tier journal 게재 1저자로 1편, 공저자 2편 (Nature 자매지 1편)이었으며, 지원 후 인터뷰 당시에는 1 저자 논문이 총 2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실적 덕분에 인터뷰 당시에 많은 교수들로부터 이목을 끌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두 군데의 학교(Georgia Tech and Brown University)에서 Ph. D. program full funding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SOP 작성하기

박사 지원자들은 대부분이 SOP를 장기간을 공들여 작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만의 개성을 SOP에 녹여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SOP에 3개월 가량의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SOP 글자 수 제한을 고려하여 지원 학교 측 Admission committee member 들의 시선으로 SOP를 검토 및 수정, 보완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측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그 학교 측에서 원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다양한데, 그 인재상을 SOP 골격으로 하여 차근차근 살을 붙여 나갔습니다. SOP 내에 저 자신의 삶과 개성을 녹여내고, 연구 경험과 실적을 모두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학교 측이 바라는 인재상이 저 자신임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SOP를 만드는 데 있어서 리더스 유학 선생님들이 매우 검토, 조언해주신 덕분에 합격할 수 있는 Winnig SOP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측 교수와 contact 하기

사실 위의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고자 하는 학교들의 교수님들과의 컨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총 3군데의 학교 교수님들과 컨택 그리고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 세 곳의 학교 중에서 두 곳의 학교에서 최종 accept 될 수 있었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아마 컨택 유무가 최종 합격률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박사 지원자들이 인터넷에서 보이는 합격생들의 스펙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미국 박사 유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합격생들의 스펙을 보고 좌절을 하곤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지원자들이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석박사 유학 컨설팅 서비스

28

Graduate School Application Package Service

미국 대학원 합격 전략 수립, 학교 검색과 선정, 이력서, SOP와 추천서 작성, 원서 작성 및 발송, 비자 수속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학원 지원 준비 전 과정에 대한 Package 서비스입니다. 리더스 유학은 지난 16년간 총 1,377명의 미국 상위권 대학, 대학원 합격자들을 배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선정 과정에서 합격을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서비스 계약 및 비용 결제는 물론 컨설팅 전 과정이 유학 홈페이지 수속자 전용 메뉴인 'My Page'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My Page'는 유학 준비 단계별로 Tip과 Sample을 제공하고 모든 파일을 지원자와 컨설턴트가 Upload & Download 하는 온라인 문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특히, SOP는 초안 작성, 내용 수정, 번역, 학교별 편집 순으로 작업하고, 모든 영문은 Native Editor가 최종 검수합니다.

항 목	내 용
Initial consul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대학원 설정과 합격 전략 수립 • 지원 준비 일정 점검 • 수속자 전용 메뉴 'My Page' Access
Resu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mple Resume와 작성 가이드 제공 • 지원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리더스 컨설턴트와 내용 수정 • 내용 확정 후, 리더스 Essay team이 번역 및 Proofread
School 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의 전공 순위, Research interest, 마감일, 입학 요건 확인 • 1차 학교 정보표 (약정 학교 수의 최대 4배) 제공
Faculty contact [Ph.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ulty Contact 이메일 Sample과 작성 가이드 제공 • 지원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리더스 컨설턴트와 수정 • 내용 확정 후, 리더스 Essay team이 번역 및 Proofread • Contact email 답변에 대한 Follow up
School se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전공과 입학 요건, 교수컨택 결과 등을 고려,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할 학교 선정 • 학교별 지원 서류 목록을 정리한 2차 학교 정보표(약정 학교 수) 제공
SOP/P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SOP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매뉴얼 및 Sample SOPs 제공 • 지원자의 초안을 바탕으로 리더스 컨설턴트가 Outline 구성 • 지원자와 리더스 컨설턴트가 SOP 내용 수정 • SOP 내용 확정 후, 리더스 Essay Team이 번역, Proofread • 학교별 SOP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편집

석박사 유학 컨설팅 서비스

29

항 목	내 용
Letter of Recomme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천인 선정 컨설팅 온라인 추천서 Request 방법 안내 추천서 가이드라인 및 Sample 추천서 제공 지원자가 초안을 작성하고 리더스 컨설턴트와 수정 추천서 내용 확정 후, 리더스 Essay team이 영문번역, Proofread
Transcrip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대학원 성적 환산 성적, 졸업 증명서의 Official 발급 안내 Transcript evaluation service 안내
Score repor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학교에 따른 Score Reporting 전략 제시 각 시험의 Official Score Reporting 방법 안내
App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온라인 원서 계정 생성 온라인 원서, 학교별 Supplemental application, Scholarship 신청서 작성 및 검토
Status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서 제출 후 의뢰인에게 Status check 방법 안내 미비 서류 발생 시 지원 학교와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진행
After accept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격 후 최종 등록 학교 결정 의견 제시 재정 증명, Deposit 등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입학허가서(-20) 취득 기숙사 신청, 예방접종, 출국 준비물에 대한 개별 오리엔테이션
V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비자 발급 서류 안내 비자 인터뷰 예약 및 신청서 작성 비자 인터뷰를 위한 가이드 제공

Graduate School Application Partial Service

유학 준비 전 과정이 아닌 개별 서류 및 준비에 대한 Partial 서비스입니다.

각 부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리더스 유학 홈페이지 'Consulting(Partial Service)' 에서 확인하세요.

- SOP, Essay, Resume, PHS, Letters of Recommendation 등 각각의 서류에 대한 **영문교정, 번역교정, 프리미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Native Coach와의 Interview Preparation Session도 선택 가능합니다.

리더스 유학 합격자 정보

30

LEADERS WORKING FOR YOU

지난 16년간 리더스 유학의 Admission Posting은 정보 비공개를 요청한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에 한해 연도별, 전공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은 지원 전공과 학위에 따라 합격 난이도가 다르므로 동일 전공, 최근 3~4년 자료만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객관적인 학점이나 영어 점수 이외의 각 지원자의 요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띄게 학점과 영어 성적이 낮은 편이지만, 우수한 프로그램에 합격했던 지원자는 대부분 탁월한 관련 경력이 있거나 국내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지원했던 사례입니다. 불합격 사례나 특정 프로그램에 합격했던 지원자의 개별 전략 등이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bout ▾ Consulting ▾ PhD/Masters ▾ Undergraduate ▾ Testimonials ▾ GuideBook ▾ Video ▾ Admission Posting ▾
Q

홈 > 2021년 합격자 정보

2021년 합격자 정보

리더스 유학원과 함께 한말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Admission Posting

합격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석/박사 과정

검색:

MAJOR	SCHOOL	DEGREE	TOEFL/IELTS/DET	GRE/GMAT	GPA
Accountancy (Scholarship \$5,000)	U Illinois-Urbana Champaign	MS	27/28/23/27/105	17/45/520	3.1/4.0
Accounting & Information Analysis	Lehigh U	MS	27/28/23/27/105	17/45/520	3.1/4.0
Accounting Data Analytics and Technologies	Pace U	MS	27/28/23/27/105	NA	3.1/4.0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Purdue U	Ph.D.	29/28/23/20/100	154/170/3.0	3.16/4.3 4.02/4.3 (G)
Agricultur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U Florida	Ph.D.	29/28/23/20/100	154/170/3.0	3.16/4.3 4.02/4.3 (G)
Applied 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U Washington	MS	115 (DET)	NA	3.31/4.3
Asian Cultures and Languages (Tuition waiver+Fellowship \$38,000)	UT Austin	Ph.D.	waiver	164/160/5.5	3.56/4.0 4.0/4.0 (G)
Bioengineering (Tuition waiver+GRA \$32,500)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29/22/20/23/94	NA	3.82/4.5 4.44/4.5 (G)
Biological and Agricultural Engineering	North Carolina State U	Ph.D.	29/28/23/20/100	154/170/3.0	3.16/4.3 4.02/4.3 (G)
Biological Sciences - Biotechnology Option	U Mass Lowell	MS	29/29/21/24/103	153/166/3.0	3.43/4.5

석박사 유학 전문 리더스 유학은 미국 대학 입학 사정관 협회(NACAC: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회원사이며, 주한 영국 문화원이 인증한 영국 전문 유학원(UK Education Specialist Agents)입니다.

공무원 국외 훈련 석사 유학

31



매년 중앙 부처 공공기관, 각 기업 등에서는 장기 국외 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가장학금이나 부서 혹은 외부 기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국외 훈련 학위 과정에 선발된 소수의 공무원에게는 공부해야 할 연구 주제를 주고, 학위를 마칠 때까지 학자금, 체재비,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공무원 국외 훈련 대상자들은 보통 행정, 경제, 공공정책으로 지원하지만, 소속 기관에 따라 공학, 재무, MBA, 인사관리, 교육, 국제관계, 공공보건 등의 전공에도 지원합니다. 지원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과 교육 여건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프로그램 이외에도 위치, 물가, 주변 환경도 고려해서 지원할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무원 국외 훈련은 자비로 유학 비용을 충당하는 일반 지원자들보다 학점이나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경력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직무 연계 프로그램이 아닌 석사 과정에 지원한다면 유학 준비에 앞서 아래 3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각 중앙 부처, 공공기관, 기업에서 선발 시에 지원할 학교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공별 일정 순위 이내, 연구 주제, 연간 학비 상한선, 학위 취득까지의 총 기간, 지원 학기, 입학 허가서에 표기되는 지원 학위명, 조건부 입학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학교 Search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영어 시험 준비는 국외 훈련 대상자 발표 전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요구되는 시험이 면제되거나 Cut-off score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English Proficiency Test의 최소 요구 성적인 TOEFL 80, IELTS 6.5점 이상을 빨리 만드는 가장 중요합니다. GRE의 경우, 행정이나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경우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많고, COVID-19의 영향으로 점수 제출을 Optional로 하기도 합니다.

셋째, 봄학기 지원의 타임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선발 시기가 늦어지면서 2022년 봄학기 지원으로 선발된 국외 훈련 대상자가 많습니다. 미국 대학원은 가을학기가 첫 학기이기 때문에 봄학기는 지원자를 모집하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마감은 올해 8/1~11/1 사이로 올해 말까지 입학허가서를 취득해 출국하려면 빨리 합격 여부를 알고 입학 허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공무원 국외 훈련은 일반 지원자의 대학원 유학과 달리 주관 단체의 조건, 영어 성적, 동반자 상황 등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지원자에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석사 과정일지라도 국외 훈련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지원할 학교의 교수에게 컨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강점인 경력이 돋보이는 이력서, 학업 계획서, 추천서 등의 Paper work에 집중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입니다.

미국 석박사 유학 전문 리더스 유학에서는 2005년 이래 58개 기관 국외 훈련 대상자 총 137명의 공무원 석사 유학 수속을 진행해드린 경험이 있으며 99% 합격의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미국 대학원 조건부 입학

32

조건부 입학이란 영어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에게 정규 과정과 영어 준비 과정을 병행하거나, 정규 과정 시작 전에 입학 요건 이상의 영어 점수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으로 입학 허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입학 요건 중에 영어 점수만 부족할 경우에 조건부 입학이 주어지는 것이지 영어 실력도 미흡할 경우에 조건부 입학이 주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대학 학점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기본적인 학업 능력이나 전공 이해도는 갖추고 있지만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지원자라면 예비과정을 통해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 조건부 입학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2년 안에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조건부 입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나 University of Maryland처럼 대학에서 요구하는 Minimum TOEFL 점수는 79이나 특정학과는 100을 요구하는 경우, 조건부 입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격했지만 첫 학기 시작 전에 영어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학기 중에 전공과 함께 영어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옵니다. 졸업까지의 기간이 늘지는 않는 장점이 있지만 정규 과정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TOEFL 이외의 다른 Qualification이 모두 우수해야 합니다.

② 예비 석사 과정

지원자의 영어 능력에 따라 2년의 석사 과정 이전에 1~2학기의 준비 기간이 추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수업과 함께 미국 대학원 학업에 필요한 노트 필기, 리포트 작성, 프리젠테이션, 연구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Academic advisor를 통해 지속해서 진학 및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미국유학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TOEFL, GRE 점수가 정규 석사 과정 지원 요건보다 낮아도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도 늦은 편입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경우 많은 학과가 이 예비 석사 과정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③ Graduate Pathway 과정

석사 준비 과정이 아닌 바로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여 2년~2년 반 만에 학위를 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학기부터 영어와 전공과목을 같이 이수하고 1년 동안 최대 9~14학점을 인정받아 석사 2년째 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GPA는 2.5 이상, TOEFL과 GRE 점수는 없거나 낮아도 지원 가능하며, 마감일은 학기 시작일 기준 6주 전입니다. SOP, 추천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어서 유학 준비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Oregon State University나 George Mason University 등 여러 대학에서 운영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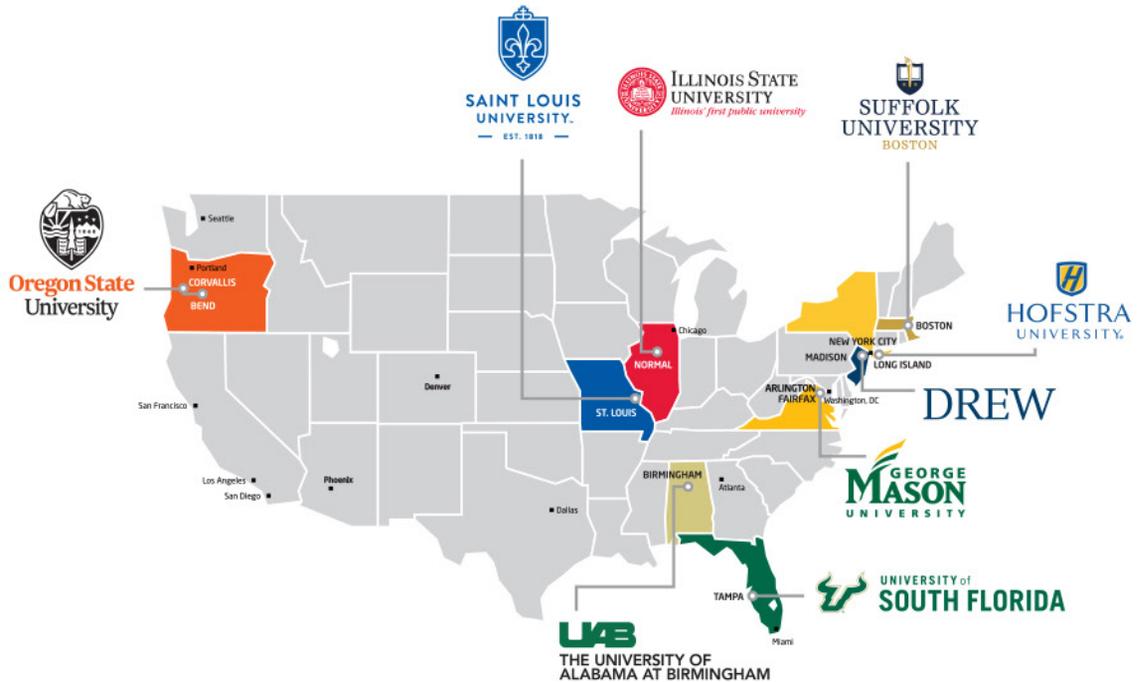
미국 대학원 유학은 일 년 이상 영어 시험 준비에 매달려 지원을 해도 지원했던 모든 학교에서 불합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대학 학점이 4.0 만점에 3.0 미만인 경우, 관련 경력이나 논문 등 다른 강점이 없다면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위 학교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처럼 학점이 낮거나 유학 결심이 늦어 지원을 위한 준비 기간이 촉박한 지원자의 경우 영어 시험 공부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Graduate Pathway Program로 바로 진학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이자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입학은 가능한 학교와 전공이 따로 정해져 있고, 각 프로그램의 입학 요건이 다릅니다. 리더스 유학은 미국 대학원 조건부 입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의 공식 에이전트로서 지원자의 영문성적표와 이력서를 참고, 해당 기관 측의 Pre-screening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입학이 가능한 학교 리스트를 무료로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Earn your degree from a top US university

Pathway programs | Direct entry | English language programs

Complete an undergraduate or graduate degree at any of our US universities



Why study with INTO?

-  9 universities in the best student cities and college towns
-  Gain direct entry to an undergraduate or graduate program
-  Have access to a variety of scholarship opportunities



유학 상담 안내

34

LEADERS WORKING FOR YOU

처음하는 유학준비, 궁금한 점 많으시죠?

미국 대학원 유학 준비의 첫 단계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빨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리더스의 석 / 박사 유학 전문 컨설턴트와의 1 : 1 무료 상담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미국 대학원 합격을 위한 'What to do'를 알려 드립니다.

- 학위와 전공별 지원 전략과 합격 난이도, 유학 준비 일정 등에 대한 상담을 20여 분 동안 제공합니다.
- 상담은 방문,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상담 시간

(월 ~ 금) 오전 9 : 30 ~ 오후 6 : 00

(토) 오전 10 : 00 ~ 오후 3 : 0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19, 401호(강남 해커스 어학원 제 1별관 4층)

02. 535. 4003

info@leadersuhak.com

무료 상담 과정에서 학교별 전공별 입학 요강 즉, 마감일, 영어 점수 최소 요건과 학교 추천, 비자 등에 대한 내용은 제공해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